



# 광남일보



|                                                                                                                                         |                                                                                                                                           |                                                                                                                                                 |                                                                                                                                                 |
|-----------------------------------------------------------------------------------------------------------------------------------------|-------------------------------------------------------------------------------------------------------------------------------------------|-------------------------------------------------------------------------------------------------------------------------------------------------|-------------------------------------------------------------------------------------------------------------------------------------------------|
|  <b>한전, 첫 '장기 배전계획' 하반기 공개</b><br>2028년까지 분산에너지 40% 확대 |  <b>담양대나무축제, 글로벌 축제로 도약</b><br>죽녹원 일원...일 최대 2만여명 '인산인해' |  <b>여수, 지자체 최초 UN기구와 COP33 협의</b><br>2026국제섬박람회 스폰서십 등 협력 논의 |  <b>영암 유해란,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정상'</b><br>26언더파 262타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
| 7                                                                                                                                       | 8                                                                                                                                         | 9                                                                                                                                               | 12                                                                                                                                              |

조간 제783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윤력 4월 10일)

## 희대의 파기환송·보수 단일화, 대선판 혼든다

### 선택! 대선 D-27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되면서 6·3 대선 본선 구도가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3·4·15면

대선이 불과 28일 앞으로 다가온 6일 민주당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홀로 나서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이준석·한덕수 3명의 후보가 나와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범보수 진영을 필두로 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성사 여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후보가 1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범보수 진영과 비명(非이재명)계는 이에 맞서 '반명(반이재명)' 기치 아래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빅텐트'론이다.

국민의힘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 민주,李 재판연기 압박 등 당력 총동원 공세 국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놓고 갈등 현실화

후보가 손을 잡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에서 시작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당대당 통합' 방식의 단일화 또는 선거 연대, 나아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 민주당 출신 비명계 인사들까지 손을 잡는 것까지 거론된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 빅텐트 명분이다.

하지만 빅텐트 움직임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김 후보를 선출했으나 지난 5일 무소속 한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김 후보와 당 대다수 구성원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을 상대로 김문수 대

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7일 시행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피하자, 단일화에 찬성하는 당심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안티테제' 논리만으로는 정권교체론에 맞서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담양 대나무축제장 찾은 관광객들 휴일을 맞아 6일 담양 대나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관방천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제24회 담양 대나무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를 주제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8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AI'·전남 '농산물' 추경예산 확보

정부가 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AI·지역화폐·농수산등 지역 전략사업 예산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이번 추경에서 인공지능(AI)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국가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등 후속 사업에 투입돼 지역 AI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 178억원을 반영돼 도시철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앱 예산이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가 반영됐으며,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 앱을 도입해 운영해는 성과가 인정받아 지원예산 6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전남도도 총 2394억원 규모의 7개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이 1700억원으로 농어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시. 153억 규모...인공지능 산업 강화  
도. 2394억 7개 핵심사업 반영 성과

전망이다.

농업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55억원)도 반영돼 농가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60억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대응 예산(50억원), 무안·여수 공항의 안전시설 개선 예산(35억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장승기·이현규 기자 sky@gwangnam.co.kr

###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 개막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광州市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도시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5일 오후 2시 개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알림

####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8일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5월 8일(목)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서 열립니다. 이번 초청 강사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현재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으며 조지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등이 있습니다.

△초청강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 제: 한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집,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일 시: 2025년 5월 8일(목) 오후 6시  
△장 소: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지하 1층 대연회장  
△기타사항: 오후 5시 30분부터 식사제공 (8층 레스토랑)  
△문의: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주 최:  광남일보

## 광주 살아? 이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

